

‘적자늪’ 광주 1000번 공항버스 면허 반납

17년간 광주공항과 도심을 이은 ‘1000번’ 광주공항버스가 면허를 반납하고 폐업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광주공항버스 운영회사 측이 면허를 반납하는 등 폐업 신고를 했다. 광주공항버스는 적자를 견디지 못해 올해 1월 1일부터 운행 중단을 결정하고 광주시와 운행 재개를 위한 협상을 했다.

운영업체 측은 “월 3천여만원의 적자로 운영이 어렵다”며 준공영제 편입 등을 광주시에 요구했다.

광주시는 이에 난색을 보이며 요금 인상, 무료 환승제 편입, 노선 조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양측 이견으로 합의가 불발돼 운영업체 측이 결국 폐업을 결정했다.

/광주=김태수 기자

춤의 역사 풀어낸 ‘영남춤 진경화’ 선배

국립부산국악원 13~14일 정기공연

국립부산국악원은 오는 13일~14일 양일간 제12회 무용단 정기공연 ‘영남춤 眞景畵(진경화)’를 개최한다.

부산국악원은 “무용단 정기공연 ‘영남춤 眞景畵(진경화)’는 영남지역에 전해오는 춤의 역사와 정서 등을 조화롭게 풀어낸 공연이다. 영남지역 춤의 독창적 고유화법을 간직한 통영(승전무, 통영입춤), 동래(한량무), 진주(김수악류 살풀이춤, 진주검무), 대구(금회복춤) 지역의 춤을 무대라는 화폭에 담아 영남춤 문화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사생(寫生)작업이라 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국립부산국악원 제12회 무용단 정기공연 ‘영남춤 진경화’의 포스터

성과 함께 오광대, 아류의 탈춤, 농악이 발달하여 덧배기와 배김사위 같은 향토춤의 특징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춤동작의 폭이 넓고 흥겹고 멋스러운 즉흥적 춤태를 지녔다.

/부산=최인락 기자 remark@

외국인 주민과 ‘韓 문화체험의 날’ 성황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는 3일 외국인자원봉사자들과 한국어교실 수강생, 외국인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한국문화 체험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국, 베트남, 러시아, 필리핀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주민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추홀전통음식문화연구원과 월미공원 등에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우리나라의 대표음식이

라 할 수 있는 ‘김치’와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누구나 좋아하는 ‘찜닭’을 직접 만들어보고 시식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 외에도 전통 의복체험과 한국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한 월미공원 등을 둘러보며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 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레티프잉(베트남)씨는 “한국에 거주한지는 조금 되었지만 이렇게 직접 만들어본 것은 처음”이라며 “직접 만들어서 그렇지 더 뜻깊고 맛있게 느껴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현재 시에는 약 115,720여명의 외국인이 주민이 거주 중이다.

/인천=최영주 기자

진주-광양 경전선 전철화 사업 승인고시

영남·호남 동서화합 빨라진다

동력운전방식 디젤서 전기로 변경 총 사업비 2395억, 2021년말 완공

경남 진주시와 전남 광양시가 경전선으로 동서화합을 앞당긴다.

진주시는 영남과 호남을 잇는 경전선 구간 중 복선 비전철로 남아있는 진주~광양 구간(51.5km) 전철화 사업이 실시계획 승인고시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전철화사업은 동력운전방식을 디젤에서 전기로 변경해 수송력 증대와 속도향상 등 철도서비스를 개선하고 운영경비 절감을 위해 추진한다.

이 전철화 사업에는 총 사업비 약 2395억원을 투입, 2021년말 완공할 예정이다. 경전선 진주~광양 구간은 진주~사천~하동~광양을 연결하는 구간

이다.

이번 사업이 시행되는 경남지역인 진주시 내동면, 사천시 곤명면, 하동군 북천면·황천면·적량면·하동읍 일원과 전남지역인 광양시 다압면·진월면·진상면·옥곡면·광양읍을 포함하는 총 1만 1318㎡에 이른다.

진주시의 사업은 내동면 삼계리에 전철운행에 필요한 송변전 설비(전철전원 공급설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관계부서의 검토내용을 반영해 실시계획 인가됐다.

시 관계자는 “진주~광양 구간 전철화사업은 정부재정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과 함께 진주시를 포함한 서부경남지역의 교통·관광·교육·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동서와 남북이 경유

하는 고속철도망의 요충지로서의 역할과 남부권 거점도시로서 도약에 대비해 ‘진주미래발전비전 구상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며 “이를 계기로 경상도와 전라도를 연결하는 동서화합의 상징성을 가지는 구간인 진주~광양 양 시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전선은 경남 경부선 삼랑진역과 광주 호남선 광주송정역을 잇는 간선철도로 경상도와 전라도를 연결하는 철도라는 뜻에서 양 도의 첫 글자를 따서 이름이 붙여졌다.

지난 1968년 진주~광양 구간 개통 이후, 1980년 경전선 전 구간 정상운행을 시작으로 2009년부터 시작된 진주~광양 구간 복선화사업이 2018년 완료됐다. 이어 2021년 진주~광양 구간 전철화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대형소매점 3년간 판매액 ‘광주 ↑ 전남 ↓’

광주 0.7% 늘고 전남 6.9% 줄어 1인당 판매액 광주 120만 전남 40만 인구당 구매능력 지역별 차이 확연

광주지역 최근 3년간 대형소매점 판매 액수는 증가하고 전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5~2018년 광주·전남 대형소매점 판매 동향에 따르면 광주지역 대형소매점 판매 액수는 2015년 1조756억원에서 2018년 1조7179억원으로 0.7% 늘었다.

백화점 판매 액수는 2015년 8979억원에서 2018년 9066억원으로 1.0% 증가했다. 대형마트 판매 액수는 2015년 8076억원에서 2018년 8113억원으로 0.5% 늘었다.

3년간 전국 대형소매점 판매 액수 평균 증가율은 2.6%(백화점 3.3%·대형마트 2.1%)였다.

2018년 기준, 광주지역 대형소매점 판매액 구성비는 백화점(52.8%)이 대



2일 오후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농산물 코너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형마트(47.2%)보다 많았다.

전국적으로는 대형마트(52.7%)가 백화점(47.3%)보다 많았다.

전남지역 대형소매점 판매 액수는 2015년 8386억원에서 2018년 7805억원으로 6.9% 줄었다. 통계청은 전남지역의 경우 백화점과 대형마트 판매 액수를 별도로 통계 내지 않는다. 2018년 기준, 광주지역 1인당 대형소매점 판매액수는 120만원(전국 평균 120만

원), 가구당 판매액수는 280만원(전국 평균 290만원)이다.

전남지역 1인당 대형소매점 판매액수는 40만원, 가구당 판매액수는 90만원이다. 2018년 기준, 인구는 광주 145만여명, 전남 188만여명이다.

광주와 전남 인구당 구매능력이 확연히 차이가 나면서 대형소매점 전체 판매 액수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

“김장철 식재료, 안심하고 드세요”

광주보건환경연구원, 광주 농산물 ‘안전’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김장철을 맞아 김장용 농산물과 식재료의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달 11일부터 27일까지 광주지역 마트, 전통시장, 서부·각화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배추, 무 등 농산물 139건과 젓갈, 고춧가루 등 김장용 부재료 20건을 검사했다.

김장용 농산물은 잔류농약 229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120건은 잔류농약 불검출 판정을 받았다.

무 잎 등 19건에서는 살충제 성분인

아세타미프리트 등이 검출됐으나 허용 기준 이내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분석됐다.

젓갈 등 김장용 부재료는 총질소, 중금속, 대장균 등 품질규격 검사에서 모두 기준 적합으로 나타났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김장이 마무리되는 12월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부적합 김장재료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검사할 계획이다.

조배식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연구부장은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되도록 김장철을 비롯해 계절별, 시기별로 시민이 자주 찾는 식품에 대해 검사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김태수 기자

인천신용보증재단 특수채권 138억 매각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장기보유하고 있던 특수채권 138억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였다고 3일 밝혔다.

매각대상은 인천신보가 대위변제하고 5년이 경과한 회수가 가능성이 낮은 특수채권이며 매각 후에는 인천신보에서 추심활동을 하지 않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권관리가 시작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매입한채권을 채무상환 능력 등을 감안하여 감면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며 이번 매각대상에 포함된 채무자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감면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j@

오늘의 날씨 해돋이/07:30 | 해질/17:14

12월 4일 (수) 음력: 11월 8일

수도권 날씨: -2 ~ 6°C

연천	-6/5
동두천	-5/5
가평	-5/5
파주	-6/5
서울	-2/6
양평	-4/6
인천	-1/5
수원	0/6
용인	0/6
평택	-2/7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